

# 더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이나 최영호나

## 지역위원장 對 현역 단체장 대결 구도 13일 선출 앞두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외 지역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간 한판 승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9일 더민주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13일 선출하는 광주시당위원장에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형석 복구를 지역위원장과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후보 등록<기호순>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두 후보는 제3대 광주시의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등 그동안 '정치적 동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오는 등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어 두 차례 만남을 갖고 단일 후보 추대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지역위원장을 가운데 단일 후보로 나선 만큼 각 지역위원장의 세를 규합하고 있고, 최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과 일부 시·구의원 등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애초 2~3명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각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추대를 받은 만큼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최 구청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더민주 자치분권민주 지도자 회의'에 소속된 정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형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당의 이름을 걸고 선출된 공직자의 자격으로 정당혁신의 길에 뛰어든다"며 "광주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해야 중앙당의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있는 정통야당에게 더민주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호남의 마음을 얻는 길이요, 호남의 마음을 얻어야 정권교체의 주

역이 될 수 있다"면서 "광주시당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을 위해 가장 혁신과 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정권교체의 중심에 광주와 호남이 다시 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혁명적 수준의 정당혁신과 대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풀뿌리 정치로 무능력한 현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정치신인은



이형석 위원장



최영호 구청장

공천한 중앙당의 오만으로 뒷받침 광주에 서조차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배출하지 못한 당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민주지도자 회의 소속된 정치인들도 적극적

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영남 광주시의원 등 더민주 광주지역 시·구의원 21명은 광주 남구청장인 최영호 시당위원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지역 권리당원(전국 대의원 제외) 1만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오는 13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때 시당 소속 전국대의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반영비율은 권리당원 ARS투표와 전국 대의원 현장투표 각 50%씩이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차 10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설명회

9일 광주 광산구 오선동 광주그린카진흥원 대강당에서 지역부품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빛고을CC·상무골프연습장 매각 난항

### 행자부 민간이양 대상 포함 광주시, 환경 훼손 우려 난색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된 광주빛고을CC와 상무골프연습장 매각에 광주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업 등 전국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해 이양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세부 이행계획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협의해 단기(1년 이내), 중기(2~3년), 장기(3년 이상)로 구분해 수립하도록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대상에 포함된 빛고을CC와 상무골프연습장의 민간이양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빛고을CC는 민간이양 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 위주의 부분별한 개발과 주변 지역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운영수익을 활용해 2010년 이후 5년간 22억2000여 만원을 빛고을 노인복지타운에 지원했

지만, 민간으로 넘기면 추가로 복지타운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골프연습장의 경우 체육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지 등 개발행위기 예상되고 운영 수익금으로 염주실내수영장, 빙상장 등 적자를 보전했지만 지원도 끊기게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사들일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민간이양이 예상되는 이 유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빛고을CC에는 15명, 상무골프연습장에는 2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민간이양이 예상되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빛고을CC에는 15명, 상무골프연습장에는 2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양, 용도변경 등 추진 시 예상되는 민원과 부작용을 검토해 관련 기관과 시민의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수돗물 공급지역 22년만에 배로 늘어

광주시의 수돗물 공급지역, 이른바 급수구역(給水區域)이 20년 만에 배 가량 늘어났다. 급수구역이 늘어난 것은 도시팽창과 함께 마을상수도 등에 의존했던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9일 올해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51곳 875만9000여㎡(8,759㎢)를 확대해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배수관 매설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장암·연동·회룡마을 등 32곳, 남구와 북구가 각 6곳, 서구 5곳, 동구 2곳이다. 면적은 기(既) 고시된 124.

406㎢에서 133.164㎢로 늘었다.

주요 고시 지역은 동구 월남동, 서구 불암마을 등이며 교도소가 신축된 북구 삼각동, 다목적 체육관과 국제테니스장을 신축한 진월동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급수구역 관리를 체계화한 1994년 74.770㎢에서 22년만에 배 가까이 면적이 늘었다.

광주에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무등산국립공원내 고지대 마을인 북구 평지마을 등 8곳과 광산구 마을 24곳 등 모두 32곳이다. 주민수는 1285가구에 2781명이다. /최권필기자 cki@

## 해외연수 조기 귀국 후 여비 챙기고 무단결근 하고

### 감사원,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 기강 해이 9건 적발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무원 여행에 갔다가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여행 자체를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광주·전남 시·군·구 5곳·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남구·북구와 곡성·순천 등 5개 기관은 자체 공무원여행 규정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 가족에 대해 공무원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4년~2015년 공무원여행 자료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비교한 결과 여행자료와 실제 여행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은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여행 허가기간보다 일찍 귀국한 뒤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명퇴한 공무원이 배우자가 아닌 동서와 공무원여행을 다녀왔으며, 동구는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여행에 불참 뒤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다. 북구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한 공

무원과 배우자 등이 국내여행을 하거나 여행 미 실시 후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다.

곡성은 현직 공무원이 여행 도중 귀국한 뒤 아무런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으며 순천은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여행 불참 후 무단결근했다.

특히 이들 소속 기관은 직원들로부터 공무원여행보고서와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허점을 보였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공무원여행규칙을 시달한 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전남도, 농작물 예방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전남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 시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역 내에서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지역 모범 수렵인과 동물보호단체, 밀렵감시단 등을 대상으로 시·군별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관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

게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인다. 포획 대상은 최근 3년간 서식밀도가 크게 늘어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많이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멧돼지, 청설보, 까마귀 등을 추가로 선정해 포획한다.

각 시·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총기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에 참여하는 수렵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